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학과		이름	목*미
파견국가	Sweden	파견도시	Örebro
파견대학	Ö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015/8/19-2016/6/11
귀국여부	아니오(6/11예정)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위레브로(Örebro)는 스웨덴의 중남부 쪽에 있는 도시이다. 약 2~3시간 기차나 버스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 수도인 스톡홀름(Stockholm)을 서쪽으로 가면 제 2의 도시인 예테보리(Göteborg)를 갈 수 있다. 학교와 중앙역(Örebro C)의 거리는 버스를 타면 약 20~30분 걸린다. 학교에는 Langhuset, Forumhuset, Teknikhuset, Nova 등 수업이 이뤄지는 다양한 대학건물들이 있다. 또, 학교 내의 위치한 Studentgaten기숙사와 학교 밖에 위치한 Tybblett기숙사가 있다. 이 기숙사들은 대부분 1인실이고, 개인 화장실, 공용주방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학교 근처에는 호수,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많으므로 여가시간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수업	스웨덴의 수업은 한국, 미국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1학기에 4과목을 4~5주의 한 과목씩 배운다.(과목 단위도 7.5ECTS) 가을학기는 9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중순에 끝나고, 겨울방학 따로 없이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초에 수업이 끝난다. 수업은 보통 일주일에 2~3번씩 있어서 따로 방학이 없는 것 같다. 수업은 교환학생을 위한 과목으로 수강해서 영어로 들었다. 수업날짜는 매주 다를 수 있고, 강의실 또한 매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업전에 나오는 시간표를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한다. 수업방식은 교수님마다 다른데, 교수님이 지정하는 교재들을 통해 과제, 세미나, 발표를 해야한다. 교재는 E-book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사용해서 따로 구매하지 않았다. 스웨덴의 수업방식은 대부분 교수님이 피피티나 책을 통해하는 수업보다 같은 과목을 듣는 친구들과 하는 조별과제나 개인과제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1년동안 수강한 과목 중에

	<p>기본으로 조별과제 1번, 많게는 3번까지 했다. 수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하나라도 패스 받지 못하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p>
프로그램 운영	<p>스웨덴에서의 모든 문제는 Pia라는 교환학생 담당자분을 통해서 해결했다. 수업과목 변경, 성적표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아니면 Langhuset에 있는 건물에 직접 찾아가도 된다) 가을학기가 시작하기 전 8월 중순부터 약 3주간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일단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을 나눈 후, Fadder라고 불리는 스웨덴 학생들이 배정된다. 이 학생들은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환학생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스웨덴의 문화, 생활방식들을 알려주고, 필요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준다. 또, 배정받은 그룹끼리 Preparty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한다. (오리엔테이션 비용으로는 900SEK 정도를 지불했다).</p>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스웨덴은 북유럽이기 때문에 겨울이 상당히 긴 나라이다. 8월에 도착했을 때 잠깐 여름옷을 입고, 바로 겨울옷을 꺼내 입었다. 겨울날씨는 한국보다 조금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온다. 그래서 따뜻한 부츠, 장갑, 목도리는 필수다. 또한 겨울에는 해가 무척 짧아진다. 오후 3~4시정도가 되면 컴컴해진다. 반대로 여름에는 백야현상으로 오후 11시나 되어야 해가진다.</p>
안전	<p>유럽 여러 국가를 여행해 봤을 때, 북유럽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기숙사는 학교 내에 있는 Studentgaten에 살았고, 학교 건물과는 5~10분 정도 걸린다. 기숙사는 1인실로, 처음가면 침대, 매트릭스, 책상, 옷장 등 기본적인 것이 제공되어 진다. 또, 개인 화장실, 공용주방을 사용하게 된다.(개인주방이 있는 기숙사도 있다) 공용주방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clean week'라는 청소를 해야 한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checkbox"/>)</p> <p>Meal Plan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요리를 해먹어야 했다. 스웨덴의 외식비용은 한끼에 50000원 이상 일 정도로 비싼 가격이기도 해서 주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해 먹었다.</p>
교통	<p>스웨덴 사람 대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한다. 자전거를 타기 좋게 길이나 보관소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주로 자전거를 이용했다. 자전거외의 교통수단은 버스나 택시인데, 택시는 너무 비싸므로 주로 버스를 이용했다. 시티(Slot or Vaghustroget)와는 버스로는 15~20분 정도 걸리고, 자전거를 타면 30~40분 걸린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20만원 정도	편도로 각각 결제(스웨덴 갈 때는 카타르 항공, 한국 갈 때는 아랍에미레이트)
Fees	오리엔테이션 비용; 약 15만원	
보험료	동부화재 보험; 약 20만원	

숙소	기숙사 비용; 약 440만원	5개월에 15,155SEK
식비	평균 25만원	월 마다 다름
교통비		
책값	X	
여행경비	평균 4~50만원	나라마다 다름
기타2		
기타3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스웨덴은 유럽 국가이지만 유로가 아닌, 자국 화폐인 SEK을 쓴다. 한국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큰 외환은행 같은 곳에서만 환전을 할 수 있다. 나는 미리 환전을 해 갔지만, 스웨덴 공황 많은 곳에 ATM기계가 많아서 이곳에서 인출해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또, 스웨덴의 언어는 스웨덴어이다. 그래서 공항이든 마트든 곳곳에는 스웨덴어로 쓰여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웨덴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한다. 그러니 스웨덴어로 쓰여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영어로 물어보면 친절히 대답해 줄 것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비행기를 내리고 낮선 스웨덴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평화롭고 초록초록하다' 였다. 말 그대로 스웨덴은 평화롭고 자연적인 곳이었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건물보다는 온통 산과 나무들이 가득하다. 위례브로 역시 수도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 산과 나무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유가 생기는 날이면 가까운 호수나, 산책로를 걷곤 했다. 스웨덴에서 생활은 처음에 사실 힘들었다. 스웨덴의 수업방식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한 과목을 5주 동안이나 배우고, 발표/조별 과제가 수업의 절반을 이루는 이 시스템을 적응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수업을 듣고, 얘기도 하고, 과제를 같이 하고 점점 적응해 나갔다. 독일, 프랑스, , 체코, 오스트리아 등 정말 공부의 열정이 많은 친구들과 수업들 같이 들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 스웨덴에 와서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지만, 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것 들을 배웠던 것 같다. 한국과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수업 중간 중간에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태까지 23년을 살면서 한국에서는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낮선 나라에서 그것도 혼자 여행을 떠나려니 걱정, 불안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막상 한번 여행을 해보니 생각보다 여행이라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럽여행을 혼자하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해봐야 할 것들을 한번이라도 더 해보려고 했다. 또 낮선 사람들과 만남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설레임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물론 여행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교환학생 기간 동안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주는 원동력이 되어 주기도 했다. 미국이 아닌 유럽, 스웨덴을 선택함에 따라 교환한생동안 힘든 점, 어려움 점이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교환학생이라는 경험이외에도 스웨덴에서 많은 값진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한해가 된 것 같다.



위레브로 시티(8월쯤)



위레브로 시티(12월쯤)



유럽 크리스마스마켓(독일, 드레스덴)



아이슬란드 여행

사진설명

사진설명